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일 시 2023.9.21.(목) 오후 2시

장 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에메랄드홀



■공동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일 시 2023. 9. 21. (목) 오후 2시

장 소 스페이스웨어 서울중부센터 에메랄드홀

공동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사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PROGRAM

시 간	내 용
13:30	등 록
14:00	인 사 말 씀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05	주 제 발 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정책적 함의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장)
14:20	사 례 발 표 1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김혜인 (서울 금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사 례 발 표 2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김진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사 례 발 표 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 존중의 상호작용 정재훈 (전남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15:00	휴식 및 자리준비
15:10	패 널 토 론 작 장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최요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김재희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문근아 (정검다리배움터 나눔 대표교사)
16:00	폐 회

C/O/N/T/E/N/T/S

주제발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정책적 함의 1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장)

사례발표1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15

김혜인 (서울 금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사례발표2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9

김진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사례발표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 존중의 상호작용 43

정재훈 (전남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패널토론 토론문 51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문 53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
-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제에 대한 통합적 고찰 58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에 따른 향후 여성가족부의 지원 강화 방향 61
최요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토론문 63
김재희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 작은 학교 아이들의 사회 적응 성장기 66
문근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대표교사)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정책적 함의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장)

※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정책적 함의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학교밖청소년연구센터장)

※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용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I. 들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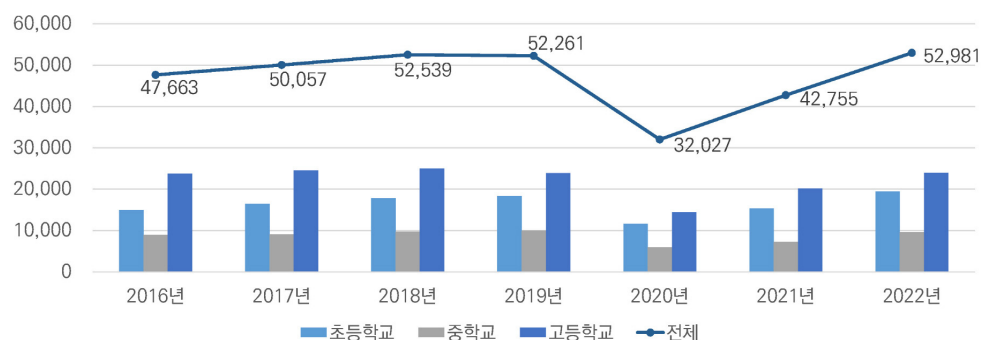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화로 기틀 마련
- 정책 및 현장에서의 지원 확대 및 성과
- 다수의 연구 결과물 축적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학업중단자 수 추이 변화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
-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교육이 시행되면서 2020년에는 그 수가 기존의 5만명대에서 3만명대로 급감
- 이전과 같은 대면 교육이 시작되면서 다시 5만명대로 증가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학업중단자 수와 비율

: 최근 5년간 경향성(2019~2022년)

-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변화가 확연히 드러남.
- 최근 5년간 통계 기준,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의 비율은 2018년 0.9%, 2019년 1.0%, 2020년 0.6%, 2021년 0.8%, 2022년 1.0%로 나타나면서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학생 수(명)	5,725,260	5,452,805	5,346,874	5,323,075	5,275,054
학업중단 학생 수(명)	50,057	52,261	32,027	42,755	52,981
학업중단 학생 비율(%)	0.9	1.0	0.6	0.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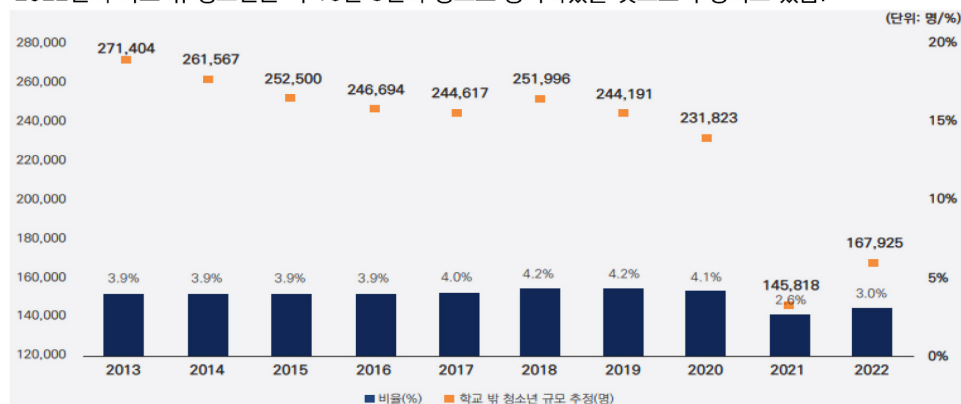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치

[출처] 하형석. (2023). ISSUE 통계: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p.3에서 발췌

-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20년 231,823명에서 2021년에는 145,81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8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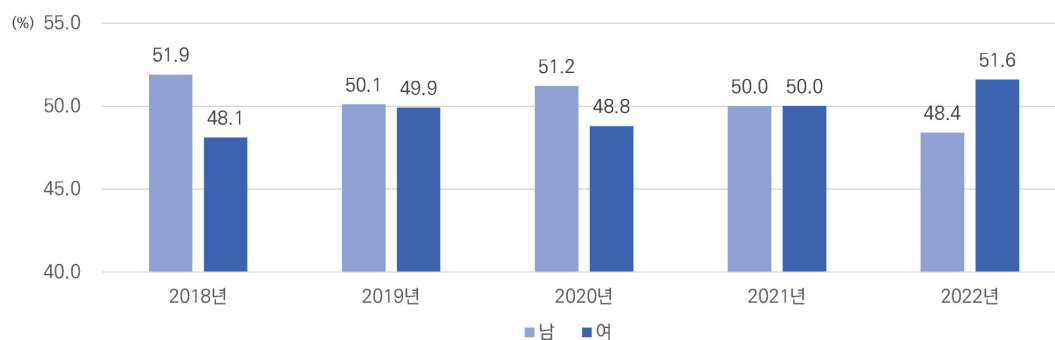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학업중단자 수 성별 차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 2018년 남자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였으나, 2022년에는 48.4%로 3.5%p 감소
- 2018년에 여자청소년은 48.1%였으나, 2022년에는 51.6%로 동일 비율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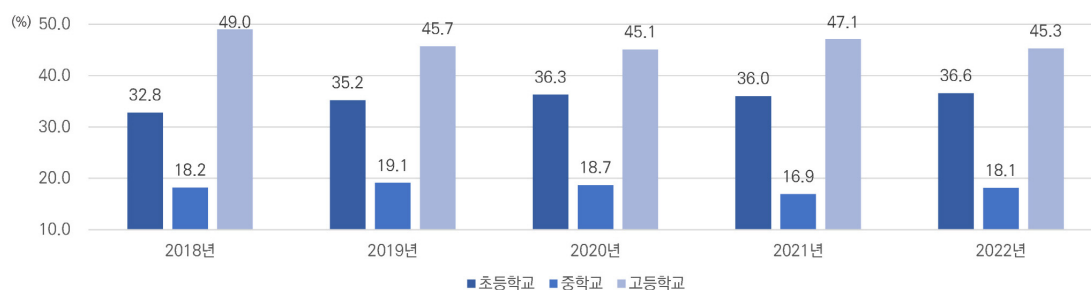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저연령화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 학업중단자 현황에서 2018년 초등학생의 비율은 32.8%였으나, 2022년에는 36.6%로 3.8%p 증가
- 2018년 중학생의 비율은 18.2%였으나, 2022년에는 18.1%로 비슷한 수준 유지
- 2018년 고등학생의 비율은 49.0%였으나, 2022년에는 45.3%로 3.7%p 감소
- 전체적인 숫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자 수가 훨씬 많지만, 저연령화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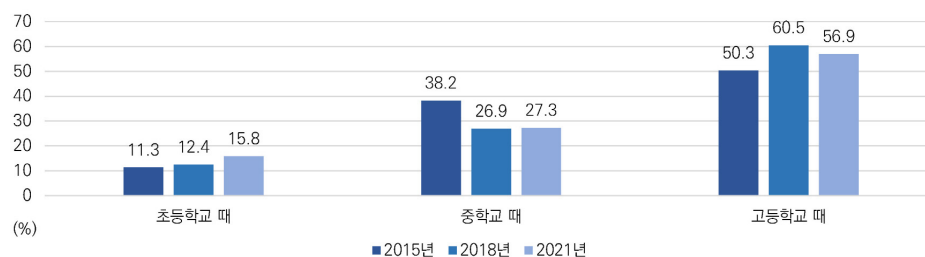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저연령화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시기

- 고등학교 때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 27.3%, 초등학교 때 15.8%의 순이었음.
- 2015년,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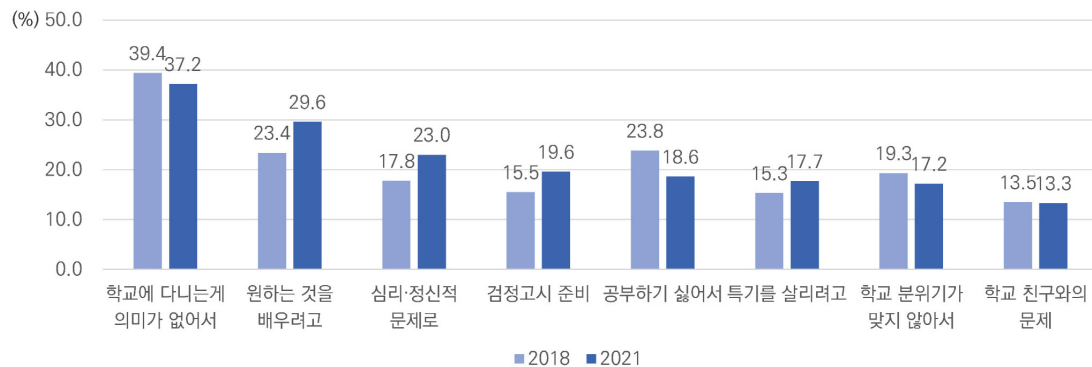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응답률 상위 8개 항목만 제시)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각각 6.2%p, 5.2%p 더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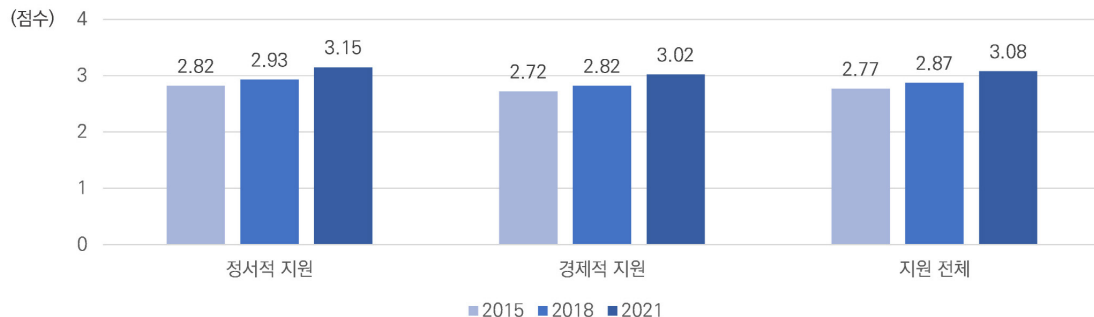


I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부모의 특성 변화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조사 연도별 부모 지원에 차이가 크며, 부모의 지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를 포함한 여타 지원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지원/지지 수준에 따른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부모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함.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와 변화

전체 지원 요구 및 성별, 연령대별 차이

-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정도에 차이가 있음.
- 검정고시 준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이,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은 여자청소년의 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은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에게서, 진학 정보 제공과 검정고시 준비 지원은 낮은 연령대 청소년에게서 높은 수요를 보임

〈전체 지원 요구, 성별, 연령대별 차이〉

구분	2021년		성별(순위)		연령(순위)			
	비율	순위	남자	여자	만9세~12세	만13~15세	만16~18세	만19세 이상
교통비 지원	84.0	1	1	1	1	1	1	1
건강검진 제공	79.3	2	3	4	13	4	2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사정보, 대안학교 등)	78.4	3	4	3	5	2	3	14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78.2	4	2	7	4	3	4	11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77.3	5	6	2	6	5	6	4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76.5	6	5	8	8	8	5	6
청소년활동 바꾸쳐(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75.4	7	7	5	9	6	7	7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74.1	8	9	10	16	10	9	9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74.0	9	11	5	20	11	11	3
직업교육훈련	73.7	10	10	11	10	13	10	5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내용 재구성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와 변화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원 요구도에 차이를 나타냄.
- 건강관련 지원과 검정고시 준비 등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짧을수록, 진로탐색관련 지원은 그 기간이 길수록 지원 요구가 높음.
- 경제적 배경이 '상'인 집단은 진학 정보 제공에 대해, '하'인 집단은 이보다 검정고시 준비 지원 요구가 높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

구분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순위)				경제적 배경(순위)		
	비율	순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2년	2년 이상	상	중	하
교통비 지원	84.0	1	1	1	1	1	1	1	1
건강검진 제공	79.3	2	2	2	4	10	3	2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사정보, 대안학교 등)	78.4	3	3	3	2	8	4	3	8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78.2	4	2	2	4	10	8	4	4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77.3	5	6	6	5	3	5	5	4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76.5	6	9	7	8	4	8	6	6
청소년활동 바꾸쳐 제공	75.4	7	8	5	11	6	7	7	8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74.1	8	4	10	6	12	6	9	8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 통합 프로그램	74.0	9	10	12	10	5	13	8	2
직업교육훈련	73.7	10	11	9	12	7	10	11	7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관련 내용 재구성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와 변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 변화

- 조사 차수에 따른 정책 수요의 순위 및 내용은 유사하지만 수요도(필요성)는 높아짐.
- 정책 수요가 높은 항목을 10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직업교육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수요도가 상승함. 단, 직업교육훈련 욕구는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함.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 수요 변화〉

구분	2021년		2018년		2015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교통비 지원	84.0	1	-	-	-	-
건강검진 제공	79.3	2	74.7	2	69.4	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78.4	3	72.5	3	66.7	3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78.2	4	75.5	1	71.7	1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77.3	5	70.3	5	65.6	4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76.5	6	70.9	4	62.8	7
청소년활동 바꾸체(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공	75.4	7	68.0	8	-	-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74.1	8	68.8	7	63.6	6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프로그램	74.0	9	67.1	9	-	-
직업교육훈련	73.7	10	69.3	6	64.3	5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와 변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 증가

- NYPI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에 대한 생각을 범주화 한 결과, 4가지 요인으로 구분 (김희진 외, 2022)

1.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한 편견 극복

“

사실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력을 갖추고 싶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입학 같은 거 준비하면 제 실력이 안되지만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싶다 그런 걸 고등학교 자퇴한 걸 좋은 학교에 가서 상쇄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2022-안).

”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와 변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 증가

2. 가족 등 주변에서 대학 졸업까지는 마쳐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

“

(대학에 진학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 어머니와 할머니가 강경하게 제가 대학을 가길 원하십니다(2023년 면접참여자C-이)

”

3.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4.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공부 등

Ⅳ. 함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필요성

- 학생 수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 증가
-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 증가
- 뚜렷한 저연령화 현상
-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심리정신적 문제로의 응답률 증가
- 부모의 특성도 변화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역할 확대
- 정책수요에서도 성별, 연령, 학교를 그만둔 기간, 경제적 배경 등에서의 차이

IV. 합의

심리사회적,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 심리사회적 문제가 결합되면 다른 지원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점차 결석하고 결국 그만두는 과정에서 일부는 은둔이나 고립의 길로 이행하기도 하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장기화 될 경우 청년고립 문제로 심화될 수 있음.

NYPI 질적연구 인터뷰 사례

조금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저만 뒤흔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2018)

저는 솔직히 자퇴생은 인생 포기한 애들이나 어디 잘못된 애들만 자퇴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퇴한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우울해 미칠 뻔 했거든요 (후략) (2023 C-이).

사람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나,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락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2022, 사례2)

갑자기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지기도 해서,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지고 카톡하는 것도 무서워지고, 연락 자체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제가 한 2주를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례6, 2021년).

IV. 합의

진로설계, 진로 지원의 전문성, 시점, 내용에 대한 고민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전문적인 지원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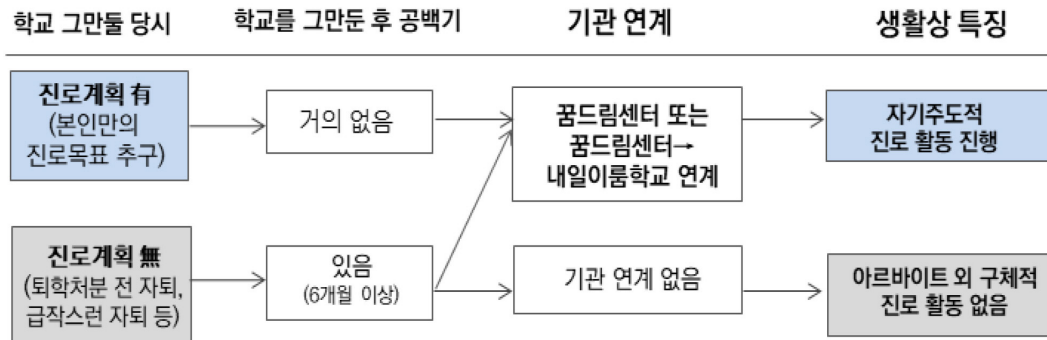
시험을 볼 때도 원서 쓰는 법 알려주고 법도 주고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곳이 학교인데 나오고 혼자 해야되니까 그게 어려웠죠(2023년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장OO)

”

-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 유무(또는 목표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경로를 보일 뿐 아니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준, 단계에서의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필요

IV. 합의

진로설계, 진로 지원의 전문성, 시점, 내용에 대한 고민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면담조사 결과 분석)

IV. 합의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유무에 따른 차이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재분석결과,
-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이 있는 청소년은 오히려 연령대가 낮았고, 부모의 지원이 많은 집단이었음.
- 계획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기간도 더 짧았으며,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더 짧았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낮았음.

[출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재분석 2023 최종보고서 내용

구 분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없음(%)	있음(%)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15.7	84.3	10.23**
		18세 이상	21.0	79.0	
	부모의 지원	상	10.6	89.4	41.09***
		중	18.5	81.5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 ~ 6개월	10.8	89.2	24.65***
		6개월 ~ 1년	14.4	85.6	
		1년 ~ 2년	16.6	83.4	
		2년 이상	21.0	79.0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16.1	83.9	7.26**
		없음	23.5	76.5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5.4	84.6	3.91*
		1년 이상	19.6	80.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8.5	81.5	4.02*
		없음	15.4	84.6	

*p<.05, **p<.01, ***p<.001

IV. 합의

사회환경적 측면의 취약성 재고

- 지역 인프라(지역사회 내 시설, 공간, 인력 등) 및 지원에서의 편차



- 바리스타랑 제과제빵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중략) 네일 포함해서 기술 자격증 몇 개를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말해본 적이 있거든요. □□시 자체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해 줄 학원도 없고(2022년, 청소년 36)
- 꿈드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꿈드림이 편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지역마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물론 좋은 데를 다녔지만 저보다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2022년 청소년 21)
- 청소년 문화센터도 다른 건물 3층을 빌려 쓰는 거라 다른 활동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고 크게 못하는 것도 있고 (2022년 청소년 43)
- 센터에 들어서 상담 요청을 드릴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맨날 갈 때마다 서류 정리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 저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허겁지겁 와서 상담을 하고 끝나면 또 상담이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자주 상담을 요청하기가 죄송한 경우가 있어요 (2023년 면접 참여 청소년 김 OO).



IV. 합의

사회적 인식 개선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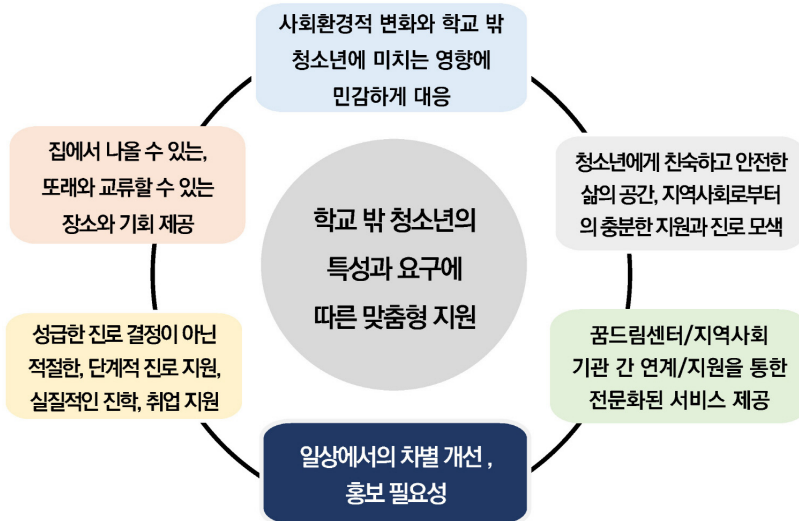
- 지역 인프라(지역사회 내 시설, 공간, 인력 등) 및 지원에서의 편차



- 학교를 나왔다고 청소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청소년들한테 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똑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2023년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박OO).
- (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학교를 안 다닌다고 대우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2023년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최OO).
- 청소년 저는 일단 알바 구할 때 나이 제한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가끔 만나시는 분들께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소수의 분들이긴 했지만 표정이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2023년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최OO).



IV. 합의



- 학교 대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수단 강구

“학교를 그만둔 것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닌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것이다”
(NYPI 연구 면접조사 참여
학교 밖 청소년)”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김혜인 (서울 금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김혜인 팀장



목차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은둔·고립 예방 및 사회진입 프로젝트

- 추진배경
- 추진노력
-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은둔·고립 예방 및 사회진입 프로젝트

since 2019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추진배경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추진배경

1) 사업수행의 필요성 및 방향

학교 밖 청소년 은둔 · 고립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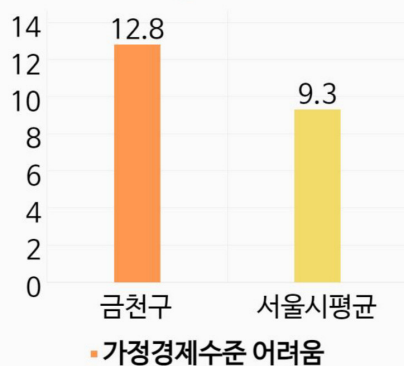
선입견, 편견, 무시 12.2%
친구와 관계단절 14.2%
무기력함 15.2%
혼자라는 불안 13.2%



[출처 : 2023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학교를 그만 둔 직후 겪었던 어려움은?']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추진배경



[출처 : 2021 서울시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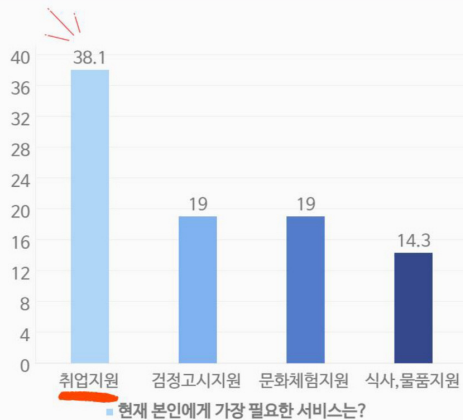
경제적 취약성 및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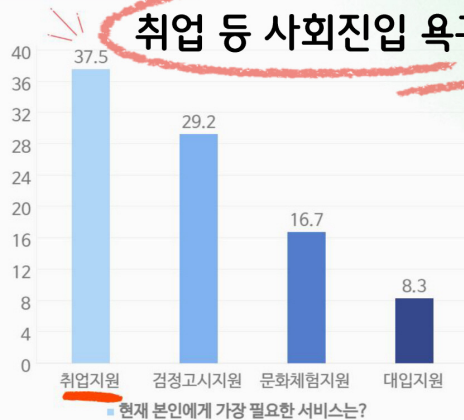
[출처 : 2023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추진배경



[2022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



[2023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 은둔·고립 위기

학교밖청소년경제적취약·결핍

취업등높은사회진입욕구



사회진입 역량 증진
+
사회진입 장벽 완화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 추진배경

2) 사업수행의 어려움과 극복 필요성



차가운 시선

- 학교 밖 청소년 **선입견**, 편견, 무시 등 부정적 인식
-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수혜사례 미비(장학, 수상)
- 지역사회 내 관심, 예산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부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 온돈, 고립 증가
-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상실 및 구직의 어려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적극적 사례관리의 어려움



극복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정사례 확대
- 지자체 관심 촉구, 예산확보
-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추진노력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 추진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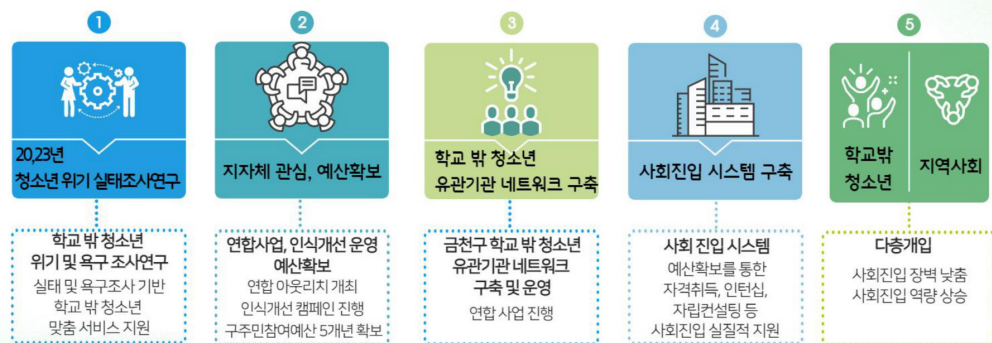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 노력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 추진노력

2) 구체적 사업추진과정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1) 청소년 사례별 사회진입역량 향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업체험 및 훈련, 자격취득, 취업·창업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동기강화



참여청소년(연인원)

2021년	총 390명
2022년	총 770명
2023년 (9월 기준)	총 481명



사회진입 성과인원

2021년	취업(인턴십, 직업훈련)12명, 자격취득 47명
2022년	취업(인턴십, 직업훈련)4명, 자격취득 32명
2023년	취업(인턴십, 직업훈련)5명, 자격취득 10명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2) 맞춤형 사회진입 역량강화 & 시스템 구축 운영

- 지속적인 사례관리, 욕구파악을 통한 **맞춤형 사례개입 진행**
- 취업·자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례개입
(욕구파악-> 컨설팅 -> 직업체험
->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3) 지자체 관심 및 예산 증대

- **구주민참여예산 5개년 지속 추가 확보** (총 7,181만원)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진입 프로그램 제공
- **지자체, 구의회** 관심 및 참여 증대
-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관심과 자원 확보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4) 학교 밖 청소년 중심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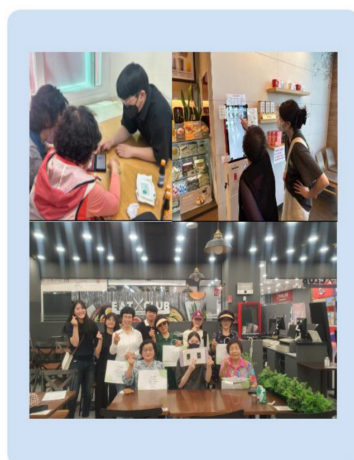


-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실질적 사례 발굴 및 통합 서비스 지원
 - 지역 내 통합 사례관리 체계 운영
 - 꿈드림, 구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이동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복지센터 등
-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주민간 소통 및 교류 중심 지역사회 협업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
- 학교 밖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합 아웃리치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5)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부정적 인식 개선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 대표적 추진 내용 및 성과



The image shows two award certificates. The left one is a '장학증서' (Scholarship Certificate) from the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Gimcheon-gu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dated May 11, 2023. The right one is a '표창장' (Certificate of Commendation) from the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dated May 20, 2023. Below the certificates is a group photo of students and staff members standing on a stage during an award ceremony.

6) 우수 인정 사례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정사례 확대
- 여성가족부 장관상 3회
- 서울시민상 2회
- 법무부 선행본상 1회
- 지역 모범청소년상 2회
- 미래장학회 장학수여 2회
- 주택금융공사 장학수여 2회
- 한국청소년육성회 장학수여 2회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 ✓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사회 특성·욕구의 지속적인 분석 및 반영을 통한 사회진입 사업추진
- ✓ 사회진입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역량 강화(내적 자원) 및 지역내 진입장벽 완화(외적 자원)의 노력 필수 병행
-학교 밖 청소년 중심적, 주도적 사업 기획 및 진행
- ✓ 지역 맞춤형 취업·자립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사회진입 사례 개입
-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 사회 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심 및 지원 확대 노력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 ✓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실질적 사례 발굴 및 통합 관리, 사회진입 통합 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등
- ✓ 학교 밖 청소년과 지역 주민간 실제적 소통 및 교류 중심의 지역사회 협업
- ✓ 사회진입 청소년 우수 사례 양성 및 확산을 통한 지역내 인식 개선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감사합니다

 금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김진한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학업 복귀)

2023. 9.21



목 차

- I.** 기본 개요
- II.** 우수사례
- III.** 결론 및 향후과제



I. 기본 개요

1. 센터 소개

시설명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5년 개소)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014. 05. 28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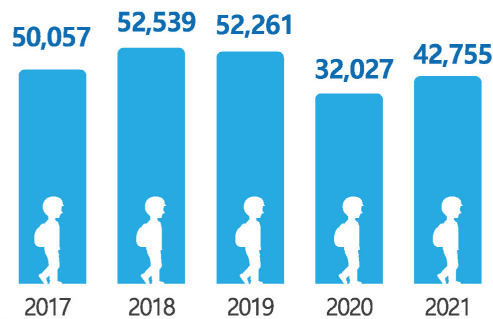
2. 서울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황

-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1개소)
- 자치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5개소)



3. 학교밖청소년 발생 현황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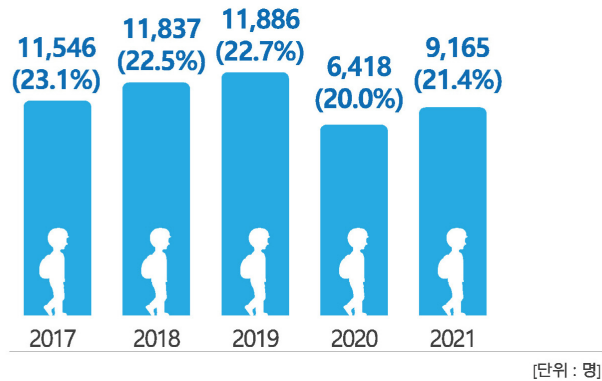


[단위 : 명]

(2017-2021.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3. 학교밖청소년 발생 현황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서울)



(2017-2021. 교육통계서비스 기준)

4. 학교밖청소년 유형

서울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 유형



(2022.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정보망(서울지역) 기준)

5. 사업의 필요성(학업복귀)

학업 복귀 지원의 필요성

“ 학교를 그만두고 80%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정고시 준비** 및 **대입 정보제공** 필요성이 15,18년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다양한 학업 복귀 지원 필요**
(검정고시 및 대입 진학 정보 제공 등)

(2021.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실태조사(여성가족부))

6. 자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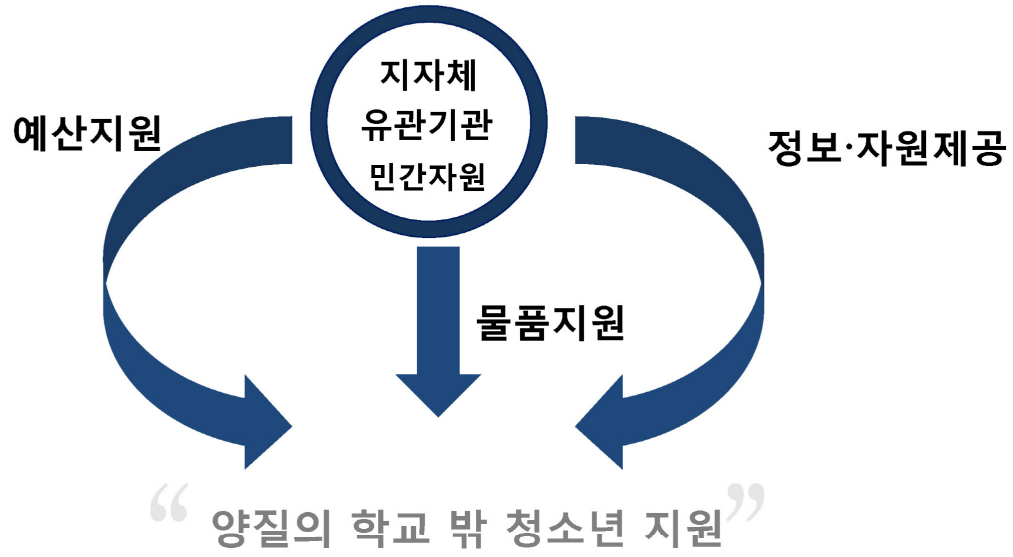
한정된 예산

학교 밖 청소년
다양한 욕구

전문성 영역

➤ **외부 자원 연계 필요**

6. 자원의 필요성



II. 우수 사례

1. 우수사례(1)

외부자원 연계(물품 지원)

- 사업명 : 학교밖청소년 스마트 기기 나눔 사업
- 필요성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 내 학습 위한 전자기기 수요증가
- 목적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스마트기기 보급(인터넷 강의 시청 등)
- 연계기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대상 :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결과 : 스마트기기 나눔 패키지[태블릿, 수강권등](총143대)

1. 우수사례(1)

외부자원 연계(물품 지원)



2. 우수사례(2)

외부자원 연계(예산지원)

- 사업명 : 학교밖청소년 교육기회 보장 사업
- 필요성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기회 보장 못 받는 학교밖청소년
예산지원 기회 제공 필요
- 목적 : 저소득층 학교밖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위한 예산지원
- 연계기관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대상 : 서울 지역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 지원결과 : 총 16명, 46,220천원 (연간 지원)

2. 우수사례(2)

외부자원 연계(예산지원)



지원결과 : 총 8개소 16명 청소년 지원

- 기초교육성취(기초 교과목 지원)
- 1인당 1,600천원~5,000천원
- 재능탐색 접근성(예체능 외국어 지원)
- 1인당 1,600천원~4,000천원

3. 우수사례(3)

외부자원 연계(다중지원)

- 사 업 명 : 학교밖청소년 대학진학박람회
- 필 요 성 :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 정보 제공 수요증가 따른 지원
- 목 적 : 진로, 진학관련 정보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입시 계획을 수립하여 진학을 미리 준비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
- 연계기관 : 서울특별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롯데호텔, 전국 28개 대학교
- 대 상 : 전국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 실무자 등
- 참여인원 : 총 902명

3. 우수사례(3)



3. 우수사례 (3)

학교밖청소년대학진학박람회



3. 우수사례 (3)

학교밖청소년대학진학박람회



III.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향후과제

향후 과제



보유 자원들의
보완 및 발전



학교밖청소년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원 발굴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의
네트워크 사업 진행

학교 밖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행복!
꿈드림이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 존중의 상호작용

정재훈 (전남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존중의 상호작용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목 차

1. 개요
2. 운영 현황
3. 지역사회와의 연계
4.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5. Q&A



1. 개요

편편비즈

한계점

1.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
2. 단 회기, 단순 체험식 프로그램 - 피상적

필요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장면에서의 경제활동 경험 필요

해결책

2020년 청소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을 통한 지자체와의 협력

다얼 협동조합

한계점

1. 여전히 혜택의 수혜자, 사회적 존중감 채워지지 않음
2. 청소년들이 자립해 떠나게됨

필요점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적 존중의 경험 필요

해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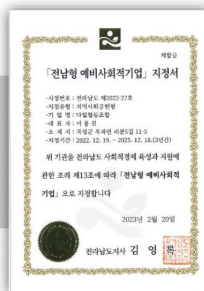
[자기주도 창업프로젝트-다얼]로 채택 - 청소년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기업
(예비)

2. 운영 현황



청소년알바안심사업장 인증
2022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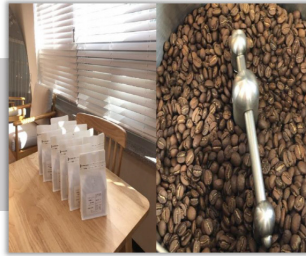


청소년 행복인터 인증
2023

:: 2. 운영 현황



CAFÉ. 다얼 카페 내부



다얼 판매 물품
(로스팅 원두)



다얼 판매 물품
(콜드브루, 드립백)

:: 2. 운영 현황



상상파티
2023



아이스페스티벌
2023



독방마켓 참여
2023

3.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층 유희공간 자립지원장 활용
접근성이 좋은 주 사업장에 대한 문제 해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지원

다얼 홍보 및 사회적 활동 참여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다얼 홍보 및
사회적 서비스 기여를 통한 존중감 향상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유희공간의 활성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카페 음료 케이터링 서비스 및
진로체험 멘토링(사람책)

3.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 기관 외 지역사회 협력



커피지도사 1급, 2급
취득 지원

바리스타 1급, 2급
취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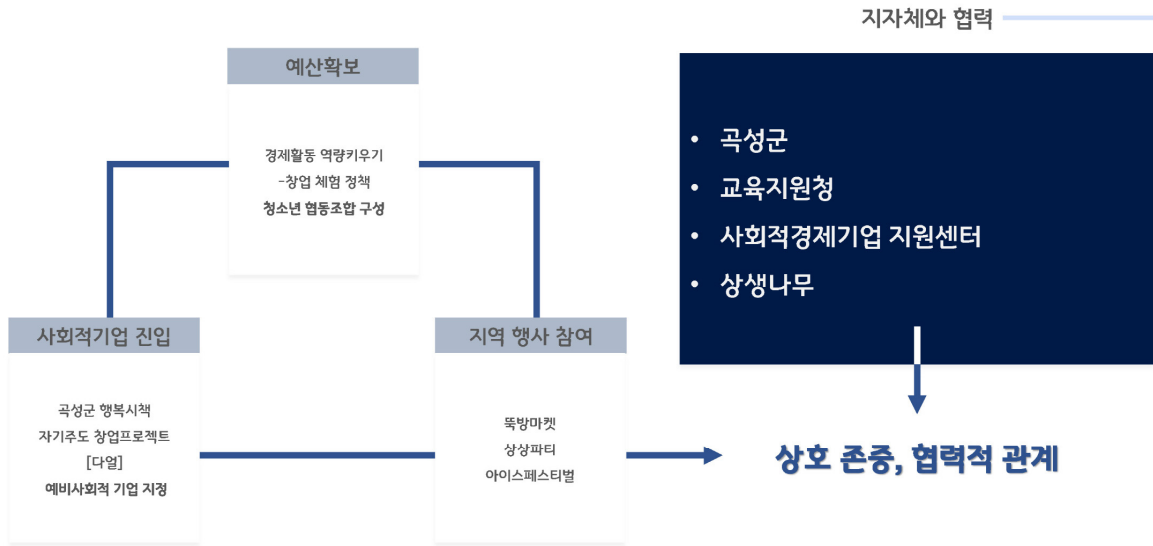
카페 근무 직원
역량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중 대학 진학 희망 청소년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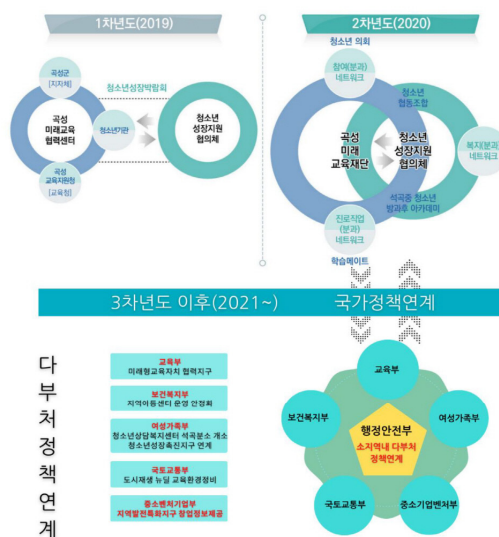
전남과학대학교 학과 소개 및 희망 학과 진학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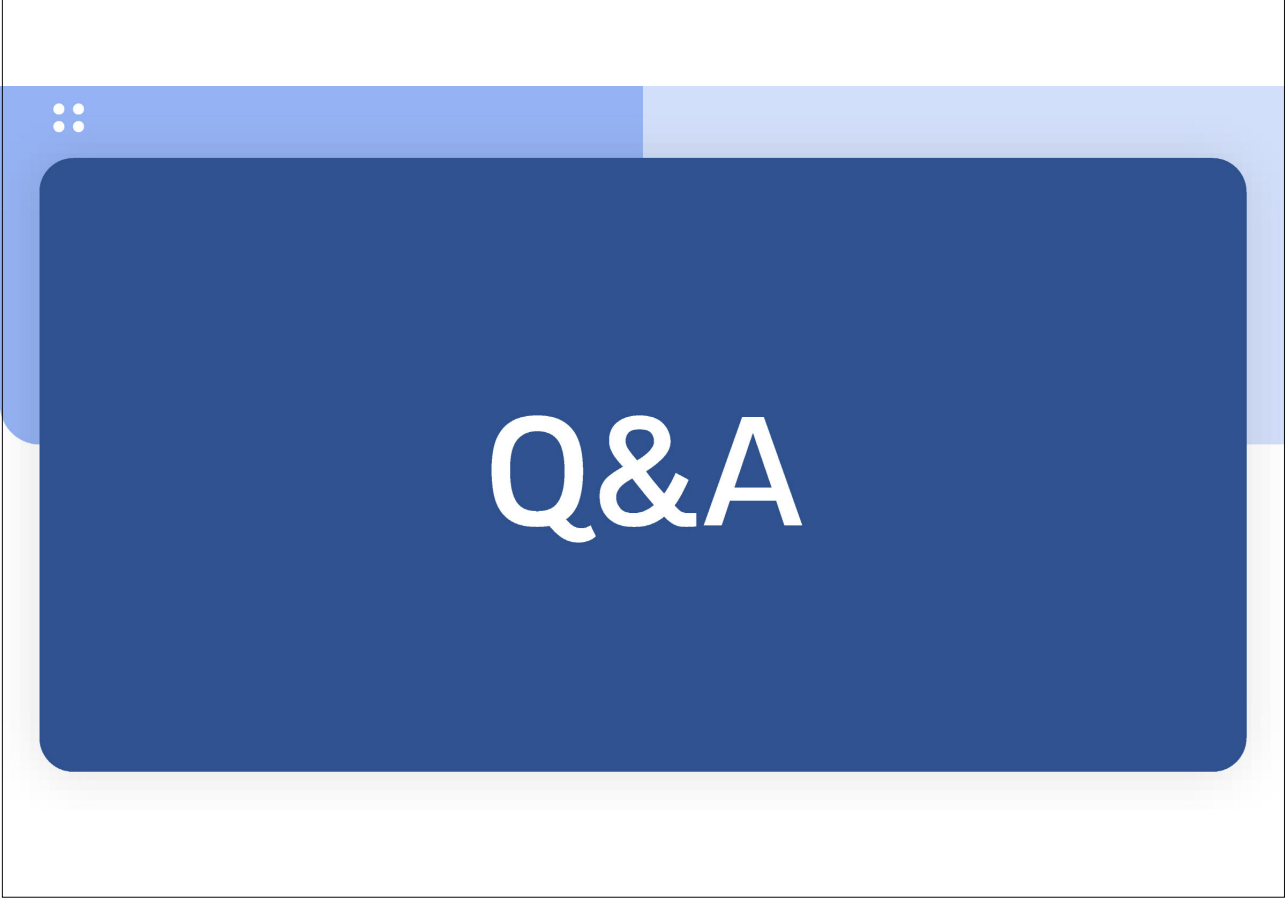
3. 지역사회와의 연계



4.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청소년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모형



A presentation slide with a white background. At the top, there is a blue header bar with a gradient from dark blue on the left to light blue on the right. In the top-left corner of the header bar, there are four small white dots arranged in a 2x2 grid. Below the header bar is a large, dark blue rounded rectangle with the text "Q&A" in white, bold, sans-serif font, centered within it.

Q&A

A presentation slide with a white background. At the top, there is a blue header bar with a gradient from dark blue on the left to light blue on the right. In the top-left corner of the header bar, there are four small white dots arranged in a 2x2 grid. Below the header bar is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with the text "감사합니다" in dark blue, bold, sans-serif font, centered within it.

감사합니다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토론문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최요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김재희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문근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대표교사)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

김광병 (청운대학교 교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이 제정되어 있고, 교육청 조례에서는 교육지원에 초점을 두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책임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에 있고, 진로지원은 「학교밖청소년법」상 상담지원의 진로상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과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 지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작동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사업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 등과 연계 및 협력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협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률상 통합사례관리 또는 사례관리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는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및 사례개입에 필요한 민간과 공공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의뢰하는 것입니다.

1.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금천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지원은 「학교밖청소년법」에서 제시된 4가지 지원 중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법」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지원,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직업소개 및 관리 지원,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직업교육 훈련 실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실제 지원 프로그램은 직업체험 및 훈련, 자격취득, 인턴십, 취업·창업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등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회진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지자체 및 구의회 관심 및 참여 증대 그리고 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관심과 자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을 위해서는 꿈드림, 구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이동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복지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 사례 발굴 및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연계된 기관들이 금천구 '꿈드림'에서 추구하는 사회진입 지원으로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는 분명한 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하신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7가지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있는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한가지 들면,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직업체험제공 기관(시장중심형, 서비스형 등 산업체 및 기관),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체험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직업체험제공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또는 직무활동 및 관련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관리하며, 국가 및 지자체(교육청)은 근로비용을 시간당 카운팅하여 지급하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꿈드림이 관리체계로서 대상자 및 대상기관 발굴, 조정, 비용지급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밖청소년법」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므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연계하여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제시하신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복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준비 및 대입 정보제공 등 다양한 학업 복귀 지원이 필요한데, 한정된 예산과 전문성 영역 등으로 외부 자원 연계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제시해주셨고 실제 사례로서 교육 보조기인 태블릿과 수강권 등을 지원받았고, 기초교육 성취와 재능탐색을 위해 예체능과 외국어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았으며, 연계기관을 통한 대학진학 박

람회 개최를 소개해주셨습니다.

다만 「학교밖청소년법」과 관련 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지원의 내용이 있으니 지역 특성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1〉 학교밖청소년법과 서울특별시 본청 조례에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 제1항)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교로의 재입학 지원 *대안학교로의 진학 지원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지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본청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지원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지원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지원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지원

〈표2〉 시·도 교육청 조례에 나타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내용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		제정 교육청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서울
대안학교로의 진학		-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검정고시)		서울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력 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서울
	교육활동비 지급	서울
	학업 복귀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재비, 중식비 지원	울산, 제주
	학습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을 위한 교육참여수당지원	전남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담	울산, 경남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부산, 광주, 경남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전남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부산, 광주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경남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광주
관련 기관과의 연계·지원		부산, 광주, 전남

학교밖청소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		제정 교육청
	공립 대안학교 설립	부산, 광주
	대안교육 지원 및 대안 교실 설치·운영	부산, 광주, 경남, 전남
	대안교육 교재의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직원 연수	경남
	위탁교육기관 지정	부산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교육청의 학력 인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이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로서 관련 기관(센터)이 설립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처럼 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학교 안과 밖에서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방안

곡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자립 지원은 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과청소년문화의집, 곡성군미래교육재단과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지원, 사회적 활동 참여, 진로체험 멘토링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커피지도사 1급, 2급 취득지원, 바리스타 1급, 2급 취득지원, 역량 강화, 자기계발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를 비롯하여 전남과학대학 관련 학과에 진학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창업 체험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 지역 행사에 참여토록 하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밖청소년법」상 자립 지원은 자립에 필요한 지원과 자립에 필요한 교육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게 되며, 자립에 필요한 교육으로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중 경계선에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 청소년의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병원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의 실제와 「학교밖청소년법」을 비롯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조례 등의 규범 사이에 어느 정도 틈이 존재하

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범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면 현실 적합하게 바뀌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현장의 능력과 한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지원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로상담을 비롯하여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와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지원 분야별 관련 기관들을 명확하게 찾아 연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제에 대한 통합적 고찰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밖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 왔고, 2018년부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질적 종단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파악하여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2022년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면담하는 연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패널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활용한 경우가 많지 않은 반면, 신규 패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센터에서 제공한 활동 및 경험이 의미있고 좋았다고 보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불과 몇 년 사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교밖청소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그 수가 대폭 줄어든 데 반해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학교밖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2019년보다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아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밖청소년 현황을 학교급 별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고등학생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2019~2022년)

단위: 명(%)

구분(학교유형)		연도			
		2019	2020	2021	2022
전체 학생 수		5,452,805 (100.0)	5,346,874 (100.0)	5,323,075 (100.0)	5,275,054 (100.0)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비율		52,261 (1.0)	32,027 (0.6)	42,755 (0.8)	52,981 (1.0)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52,261 (100.0)	32,027 (100.0)	42,755 (100.0)	52,981 (100.0)
초등학교		18,366 (35.2)	11,612 (36.3)	15,389 (36.0)	19,415 (36.6)
중학교		10,001 (19.1)	5,976 (18.7)	7,235 (16.9)	9,585 (18.1)
고등학교	일반고	13,791	9,112	12,529	15,310
	특목고	961	601	829	980
	특성화고	7,927	4,121	6,143	7,157
	자율고	1,215	605	630	534
	소계	23,894 (45.7)	14,439 (45.1)	20,131 (47.1)	23,981 (45.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14. 인출.

다음으로 오늘 포럼 주제 및 사례 발표와 관련하여 향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명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다년간의 연구에서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늘 포럼에서 사용한 사회진입, 자립 등의 용어는 그 의미가 서로 중첩되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용어를 좀 더 엄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진입과 자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각각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맥락이 있다면 연구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방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또한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면담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는 인력 및 자원 부족의 문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체계에서도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학습을 지속하려는 학생에게 학습용 기기 등 물품 및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물품이나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기기나 지급된 예산을 활용하여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학습 습관에 대한 지도나 학습 과정 및 결과 관리가 병행 되면 그 효과가 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계는 초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학습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습하는 인간'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교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전과 다르게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한 직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영위하는 현실 속에서 평생 공부하고 배우는 것 또한 현대의 인간이 갖추어야 할 역량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 자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한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한 번 학업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그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학교밖청소년 지도에서 이러한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에 따른 향후 여성가족부의 지원 강화 방향

최요한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

‘14년 제정’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부터 설치되어 현재 전국 222개소가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과 비교할 때 인력, 예산, 인프라 등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왔음.

* ‘20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 예산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대비 7.7%에 불과

그동안의 꾸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의 결과, 오늘 사례발표는 모두 각 지역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 팀장님들께서 맡아주셨음.

학업복귀, 자립지원, 사회진입 각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각 학교밖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오늘의 사례는, 다른 기관과 지역에서 다양하게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사회진입지원’은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사회 참여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진입하여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정책임.

서울시 금천구 ‘사회진입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사례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 취업 지원 욕구가 높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보임.

‘21년 실시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순위는, 교통비 지원(84.0%), 건강검진 제공(79.3%), 진학정보 제공(78.4%), 검정고시 준비 지원(78.2%) 순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에서는 지역 욕구를 반영하여, 구주민참여예산을 5개년 간 확보하고,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추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격취득, 인턴십, 자립컨설팅을 지원한 성과가 있었음. 관련하여 사회진입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개인별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진입 장벽 완화의 노력이 병행되어야할 필요성 제기에 동의함.

‘학업복귀지원’은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을 돕는 정책임.

서울시의 ‘학업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사례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는 학업복귀 지원사업의 모범적 사례를 볼 수 있었음. 발표하신 바에 따르면, ‘22년 기준 서울지역 센터 소속

학교 밖 청소년 중 77%가 학업복귀형으로 나타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스마트기기 지원이나, 서울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롯데호텔 등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학교 밖 청소년 대학진학박람회도 학업복귀 지원에 효과적으로 기능했음.

참고로, '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센터 44개소에서 총 52회의 대학 입시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1 맞춤형 입시컨설팅도 센터 52개소에서 총 76회가 추진될 예정임. 관련 모델이 보다 확산되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학업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자립지원’은 취·창업지원, 근로권익교육,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일자리를 탐색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임.

전남도 곡성군에서 발표해 주신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에서는, 기존 두드림 프로그램 내 활동 프로그램인 ‘편편비즈’의 체험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연계 되도록 청소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 및 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음.

다만, 협동조합 구성, 사회적 기업 지정 등이 청소년 기관 실무자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해 봄.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에 기존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더해 신규로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추진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오늘 논의된 사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음.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토론문

김재희 (한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여성가족부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김희진 외, 2021)에 의하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았고(57.0%), 그만 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37.2%),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23.0%)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6.7%의 청소년이 '특기를 살려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찾을 기회가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는 2015년, 2018년에 비해 점수가 높아져 직업과 진로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5.7%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직업교육훈련, 진로상담 및 취업 연결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층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 진로준비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다양한 학습 및 자격 취득, 전문 대학 진학상담 지원 등의 확대 필요성이 정책과제로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특기를 살려' 원하는 것을 배우려는 욕구'에 따른 진로 지도와 진로 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는 서울시 금천구 꿈드림과 전남 곡성군 꿈드림, 서울시 꿈드림의 사례만 제시되었지만, 실제 전국의 220개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찾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가슴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금천구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 은둔·고립 예방 및 사회진입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 욕구 조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진입시스템을 구축 후 청소년의 성장을 이끌어낸 매우 우수한 사례로 여겨진다. 경제적 취약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지역 특성으로 청소년들은 '취업지원', '점점고시지원' 순으로 욕구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부(2021)의 실태조사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훈련과 취(창)업 연결 프로그램 수요가 많은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경제적 취약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은둔·고립 위기 예방과 사회진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진입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꿈드림의 한정된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후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진입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매우 체계적인 접근이라 보여진다. 이를 통한 지역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역량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서울시 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한 사례는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꿈드림 종사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자원을 통해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하였으며, 대학진학박람회 개최를 위해 서울시의 별도 예산과 민간자원들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성이 높을수록 멘토, 진학정보 제공, 대학관련 상담,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등 학업 및 진로/직업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여성가족부, 2021)을 고려할 때 서울시꿈드림의 지역자원 활용 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 곡성군 꿈드림은 '존중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들의 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체험식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 및 다양한 진로경험의 필요성에 의해 3차년도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자기주도 창업프로젝트인 '다얼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회적 존중감 저하와 청소년들이 자립하여 떠나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례라 판단된다. 특히, 옥과청소년문화의집 1층 유휴공간을 자립지원장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였고,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는 진로체험 멘토링을 하였으며, 지자체, 교육지원청, 꿈드림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상호존중하며 협력적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타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례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에 있어 심리·정서적 측면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사유로 심리·정신적 요인도 중요하게 나타났고, 학교 중단을 후회했던 이유로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므로 진로 지원에 있어서도 '관계' 측면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면담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진로 및 경제적 독립 문제를 호소하며, 그 외 시간 활용의 어려움, 외로움과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의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 중단 후 진로준비의 어려움과 고립감, 학력주의 사회에서 학교를 이탈한 것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이 재학 중 청소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전문 사례관리로 빠른 사회진입으로 인한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적 측면을 고려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단기 직업 훈련 및 체험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심화 인턴십 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 금천구 꿈드림과 전남 곡성군 꿈드림의 사례처럼 지자체 및 별도의 사업 예산 확보 및 체계적 시스템 구축으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광주광역시꿈드림은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치분과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을 위한 심화 인턴십’사업을 제안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들 중 면접을 통해 6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기존에 수료한 청소년작업장에서 6개월 인턴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들은 주 25시간 근무하며 약 15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직업 기술의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담인력 한 명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상담사가 매 월 공동문화 체험 활동과 사례관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작업장 교사와 청소년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까지 살피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의 심화인턴십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후기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조사(김영신 외, 2021)에 의하면 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의 필요에 의한 상시 진로상담 체계가 미흡하고 진로 찾기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정보플랫폼과 맞춤형 진로지도의 필요성, 전문 심화과정 발굴과 취업 지원 등 프로그램 다각화에 대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셋째,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비 지원의 특성으로 인한 꿈드림 종사자의 소진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으로 물품 및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꿈드림 사업외의 사업비 지원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상근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꿈드림 가형은 상근 인력 4명, 나형은 3명 다형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은 겸직이거나 비상근인 경우가 많다. 꿈드림 종사자 1명의 사례관리 청소년은 평균 6-80명 정도로, 심리상담 및 학업지원과 다양한 맞춤형 진로지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꿈드림 종사자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2~3년으로 나타나서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한 종사자의 소진은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열정페이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가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 양적인 성과보다 더 심도 깊은 질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꿈드림 종사자의 인력 증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김연신, 김승희, 박주희(2020).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방안-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2020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06.

작은 학교 아이들의 사회 적응 성장기

문근아 (징검다리배움터 늘품 대표교사)

1. 늘품학교 소개

광주에 있는 작은 대안학교로 학생수는 10명이 안되는 학교로 2012년홍사단 나잘난 학교가 문을 닫으며 그 청소년들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어 2014년에 늘품학교로 시작되었다. 나잘난 학교는 법원에서 소년원에 보내기 전 단계로 100시간의 수강명령을 하면서 학교형태로 운영이 시작되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취약성, 비행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가정내 돌봄과 지지 부족(대부분 한 부모 가정 또는 탈 가정 청소년)학업에 흥미없고 학업을 독려하는 지지기반이 없었다. 그럼에도 `학교가 이렇게 재미있었으면 학교를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일화가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관심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생활밀착형 수업을 받는 일은 행복한 추억이 되는 듯 했다. 갑작스럽게 폐교가 결정되고 청소년들은 그나마 수강명령을 받던 학교가 사라져 버렸다.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과 함께 무작정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청소년들 스스로 공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 카페를 전전하거나 다른 학교 공간을 빌어쓸 때에도 즐겁게 함께했고 떨어져 나가지않았다. 오히려 법원과 보호관찰소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지자 자유롭게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늘품학교는 지금껏 친구따라 오는 학교가 되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늘품학교의 모토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를 놓치지 않기위해 바로 맘먹은 때에 입학이 가능하고,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하므로, 학비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껏 친구따라 오는 학교가 될 수 있었다.

2.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하는 청소년들

가정의 지지가 취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되지않아 청소년들 대부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므로 일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초기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일이 어렵지않아 일과 학업을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단시간 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찾거나 제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일터에서의 불성실함도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하는 일도 여의치 않자 우리 스스로 작은 작업장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자금과 불성실, 관리할 인력의 문제등 어려움이 산적해있어 포기했다.

3. 건강한 일자리 찾기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일을 포기하고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자리를 왔다갔다 하는 일을 받아들였다. 건강한 일자리를 찾기위해 고용센터를 찾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조금씩 마련된 청소년 일터를 찾았으나 지속적인 일터가 되기에 부족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청소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학교를 떠난다. 남성 청소년들은 군입대문제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어 군입대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만족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돈을 모으는 경우가 많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자격을 취득하여 기술직을 희망하기도 한다. 자격증취득 시험이 어렵고 훈련기간이 꽤 길어 그 시간동안 생계비가 부족한 부분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경우도 많아 대부분 최저 시급조차 받을 수 없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에서의 초단시간 노동이 대부분이다. 학교에서 가르친 노동인권수업의 영향인지 부당함에는 결연히 맞서는 편이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오래 버티기도 쉽지않다. 곳곳에 부당노동행위들이 산재해있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뭐라 가르칠것인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라 해야할 일인가?

일자리 찾기도 성별차가 존재한다. 남성 청소년, 청년의 경우는 군 제대후부터 주로 일자리를 찾아가기로 하고 그 전에는 가볍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 고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현장에서 익히는 경우가 가능하고 대부분이다. 생산직 공장노동이나 기술이 쌓일 수 있는 육체노동의 경우, 자리잡고 성실히 일할 경우에 보수도 비교적 안정적이 된다. 하지만 곳곳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일자리가 하청노동인 경우가 많아 산재의 사각지대가 대부분이다. 웬만한 사고는 치료만 하고 견디는 편이다. 우리 아이들은 산업역군이 되어 건강하게 일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당한 대우들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청소년, 청년의 경우에는 진로찾기가 더 어렵다. 곳곳에 성착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단순한 판매직이나 콜센터 주로 서비스직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성들인 경우 자격이 더욱 중요해지고 대학에 진학해 졸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나 보육등 또다시 돌봄노동이나 사회서비스직이 그나마 건강한 일자리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더불어 성착취의 문제가 더 얹어진다. 부푼 꿈을 안고 사무직에 취업했어도 성희롱등이 일상화되어있다.

4.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력

- 진로지도를 하는 일은 교육과정과 분리되어있지 않다. 그 간 조금씩 관심들이 생겨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법이 생겨나고 지역에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위해 고민이 더해지고 시스템들이 구축되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들이 아이들에게 가 닿는 방법들은 아직 미미하다. 각 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때 학교밖센터에 명단을 넘기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여 시스템과 연결된 청소년들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다. 청소년 총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히 연결하는 노력을 해왔다. 여기에 보다 청소년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지원한다면 보다 튼실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곳에 자리한 늘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연결고리조차 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늘봄학교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한다. 늘봄 학교에는 청소년, 또는 늘봄을 거쳐간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연결하고자 노력했다. 주거문제 일자리문제, 청년, 청소년 지원체계가 있다면 어떻게든 연결해보려 해왔다. 그 간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이 청소년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일 경험을 위한 작업장학교의 경우를 보자. 생계를 직접 꾸려야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형태였으나 인력도 재정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 포기했던 터인데 보다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모시고 짧으나마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기대감이 컸다. 그럼에도 초창기 근로기준법(주휴수당의 문제) 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예산문제로 초단시간노동으로 전환하여 자리잡는 사례를 남겨 안타깝게 되었다.

5. 교사로 함께하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불성실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다. 하지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 안전사고의 위험등 안전한 일자리는 사실상 별로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갖춘 졸업생이 함께 일하자고 해왔다. 현장에서는 항상 우리들의 생각을 앞서는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졸업생들이 교사로 돌아와서 함께 일한다면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귀감이 될수도 있고 청소년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예산은 2명의 상근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1명분의 인건비로 2명이 나누어써야하는 상황이니 임금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다. 제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미래가 밝아보이지 않았을 터 함께 하던 선생님 2명은 그렇게 떠났다. 다행히 현재는 4년간 함께하는 선배 길잡이교사가 자리잡았다. 승진과 임금상승등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안전한 일자리는 되어주는 정도로 계속 일하고 있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6. 학업

- 대학진학은 중고교시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전망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학진학은 쉽게 되었다. 하지만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경험대가 좁아 선택의 범위가 한정되어있다. 정작 입학은 어렵지않게 했어도 생계를 해결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더구나 남보다 훨씬 더 공부를 해야하는 형편이었으니 병행하는 일이 쉬울 리가 없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막아내기 힘들었다.

남성인 청소년의 경우도 중요하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학진학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대학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 그나마 조금은 안전한 일자리를 찾는 길이었다. 대부분 서비스직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지않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지 못했다. 물론 자격을 갖추었다해도 사회서비스나 돌봄노동의 경우 임금체계가 일반 서비스직보다 못한 경우도 아주 많다. 여성이 감당해야하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드림청년 일경험사업-안전한 재교육시스템

2017년 청년드림사업이 시작되고 늘품학교는 드림터로 참여하기로 했다. 졸업생들의 재교육시스템으로 정착시켜보고 싶었다. 초기에는 연령도 어리고 준비도 되지않아 힘들기도 했으나 꿀빔다는 인기에 힘입어 ①점정고시에 합격하고 고졸 자격을 갖추는 것, ②컴퓨터 활용능력수업을 받거나 배워서 실무능력의 기초를 다질 것등의 조건을 걸고 컴퓨터 활용능력수업을 개설하고 재교육의 준비를 했다. 이 후 몇차례의 드림청년들이 배출되고 점차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청소년들 유입이 적어질 동안 후기 청소년들이 유입되어 오히려 이 사업이 잘 돌아가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청년들이 후배들의 멘토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8. 협동조합 (스스로 일자리 만들기)

2019년부터 학교에서 기후와 환경수업을 시작해서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처음 기획할 때 청소년들이 따라와 줄까 우려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반응은 비교적 뜨거웠다. 그 이전에는 담배꽂초버리는 일,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을 쫓아다니며 잔소리르 해대기도 했었으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당사자는 빠르게 반응하였고 기후위기정책을 시행하라는 피켓시위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후기 청소년들의 유입, 드림청년제도 등이 서로 시너지를 내어 코로나시대에 중학교시절을 보내며(건너뛰며) 고교에 진학하자 부적응의 문제를 겪은 새로운 청소년들이 유입될 때 멘토를 자처하기에 이르렀고 마침 기후위기의 당사자이며 취약계층이 기도한 학교밖 청소년들이 햇빛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면 함께 돕겠다느 제안이 왔을 때 스스로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모체를 만들어보자는 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제 막 협동조합을

결성한것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크다.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보는 고민을 함께 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경험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의 경험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9. 결론

성장과정 오래 지켜보기!!!

정서적 사회적 지지기반이 탄탄할수록 건강해진다.!!!

늘품 학교는 일정한 틀이 없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려 노력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었다. 서로 바라보기보다는 함께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을 함께하려 했다.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10년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지하고 도와야한다는 논문을 초창기 어디선가 읽게 되었다.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어떤 틀을 가져야하는 지 고민이 많을 때 하나의 답이 되어준 논문이었다. 지지가 약하고 울타리가 약한 청소년들이 성장을 해감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변수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주변의 관심과 지지,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로써 두터운 울타리들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다.

- 하나 더 제안한다면 정말로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전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MEMO

MEMO

MEMO

MEMO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일 시 2023.9.21.(목) 2시

장 소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 에메랄드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층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TEL. 044-415-2163 FAX. 044-415-2349 www.nypi.re.kr